韓 國 保 健 看 護 學 會 誌
J·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ume 11. No. 1, 103-117, March 1997

보건소 간호사의 실습지도 경험에 대한 연구

유 수 옥 (목포전문대학 간호과)

목 차

Ⅰ. 서 론
Ⅱ. 문헌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Ⅵ.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영문 초록

Ⅰ. 서 론

간호교육에 있어서 실습교육은 매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축적된 지식을 간호 대상자에게 적용시켜 문제를 확인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를 실시하고 평가 및 재조정하는 과정을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실습을 통한 간호교육은 학생들의 요구 및 능력에 포함되는 임상실습과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대상자중심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이원희, 김소선, 한신희, 이소연, 김기연, 1995).

간호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학습경험은 지식, 기술, 대인관계감, 자기인식 등을 증진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은 이론과 실제인 학교와 현장간의 관계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도움을 준다(Fishel, 1981). 이에 지역사회간호학 이론의 실제현장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실습장소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건행정을 담당하며 여러가지 보건사업과 지역사회보건간호를 지역주민에게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보건소에서 지역사회간호실습을 거의 대부분 실시하고 있다(정영숙, 1982; 정연강, 김윤희, 양광희, 한경자, 한상임, 1988).

그런데 실습 현장인 보건소의 조직을 파악해 보면, 일차보건의료의 핵심조직인 보건소의 기능은 1962년에 제정되었던 보건소의 업무를 사회경제 발전과 인구증가 추세로 인한 노인인구와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증가, 질병양상의 변화 등,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건교육, 노인보건, 정신보건, 장애인의 재활 등 새로운 업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하였는데, 그후 1995년 12월에는 다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평생관리하는 보건의료서비스체제의 업무로 전환시켜 국민건강증진, 응급의료,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장애인의 재활사업 등의 16가지 업무를 부여하여 그 기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사업의

주요 제공자로서 지역주민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보건소 인력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간호사는 가족계획사업, 영유아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진료사업, 방문보건사업, 전염병관리사업, 보건교육사업, 노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의 다양한 보건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보건간호사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상급자는 간호, 의무, 약무, 보건, 행정직으로 다양하며 시, 도뿐만 아니라 중앙조직인 보건복지부도 보건간호사업에 대한 계획, 집행, 평가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있는 실정이어서 보건간호사업의 조정, 통제가 어렵게 되고 효율적인 보건사업 수행에 장애가 된다(김성실, 1984; 박인혜, 소향숙, 1986). 또한 보건소의 인력중 보건간호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으나(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중간관리계층의 비율은 보건직, 행정직, 약무직, 의무직에 비해 간호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소업무의 의사결정 권한도 상위직에 높게 분포되어 집중화 경향을 보였다(윤순녕, 1995). 이러한 여러가지 제반 문제로 인하여 보건간호사들의 사기는 저하되어 있으며 직무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박인혜, 소향숙, 1986; 유수옥, 1987).

간호학생들의 지역사회간호학 실습장으로 보건소, 보건진료소, 학교와 산업장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인 94%가 보건소에서 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정연강, 김윤희, 양광희, 한경자, 한상임, 1988), 실습부서를 보면 과·계에 속한 각실에 배치되어 각실의 총책임자인 실장들을 통하여 실습지도를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전체적인 통괄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실습현장에서 간호학생에게 역할 모델이 되고 실습실무지도를 해야 하는 보건간호사들은 병원 임상실습지도자인 수간호사들이 병동관리 업무와 임상실습 교육업무의 이중고로 역할갈등을 겪는 것(이원희, 방매륜, 1993)처럼 역할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처음 임상실습을 통해 긴장감,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피로, 실망 및 회의, 성취감 등을 경험하는(고성희, 김기미, 1994) 간호학생들에게 이러한 지역사회간호 실습현장은 이론과 실제와의 차이, 실습지도교수, 실습기관의 직원 및 실습자원의 부족 등으로(정영숙, 1982) 더욱 실습 만족도를 떨어지게 해 실습경험을 통한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 교육을 하는데 효율성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간호교육자는 전문직 기술을 습득하는 간호학생과 학습이 일어나는 실습환경과의 주요 연계자로서 간호실무의 본질을 교육해야 할 뿐 아니라 실습환경에서 실습지도와 role model이 될 수 있는 실무자를 인식하고 상호교육하여 이론과 실무의 차이가 실습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간호 실습에 임하는 간호학생들의 실습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와 보건소가 상호 협력하여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 실습현장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 실습실무지도자의 관점에서 실습지도 경험에 대한 연구가 지역사회 실습지도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지역사회간호 실습을 계획하고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간호사의 간호학생 실습지도 경험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사회간호 실습에서 현장실습지도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연구의 질문은 "보건간호사의 간호학생 실습지도 경험은 무엇인가?" 이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사회간호 교육자들이 보건소 실습현장의 실습실무지도자들의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전인적인 지역사회간호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과 보건소와의 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Ⅱ. 문헌고찰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간호직, 보건직 7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윤순녕, 1995)에서 보면 보건간호사는 공식화 정도가 높은 즉, 직종별 활동은 직무기술된 업무분장에 의해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결정 권한을 직종이 높은 상급자에 의해서만 집권화 되어있는 보건소 조직속에서 근무한다.

이들의 업무를 보면 가족계획사업, 모성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영유아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진료

업무, 노인보건사업 등의 순으로 되었던 사업이 '90년대에 들어서서는 다양한 대상자의 건강증진사업을 강화시켜 적극적인 보건서비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S시 7개 보건소 151명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유수옥, 1990) 보건간호사는 제도적인 면 즉, 권한이 적고 업무 한계의 불확실성, 승진기회, 업무수행평가 등에 대하여 역할갈등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태도에 대한 간호 전문직 교육수준이나 계속교육의 요구가 높으나 업무수행의 자율성이나 윤리성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직무만족을 보면 서울시 간호직 공무원으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자율성과 업무면에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유수옥, 1987) 보건소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의사결정 권한의 정도에 따라 직무만족 정도가 유의한 정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윤순녕, 1995).

그런데 간호학생들은 학교환경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인 임상실습장에서 그들의 신체적인 역할능력과 의료인들의 역할기대가 다르고, 그들이 수행할 역할이 명백하지 않다면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Sobel, 1978).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전 선입견 및 불안감은 임상실습장소인 병원이 행동제한된 곳으로 실습에 대한 지식부족, 막연한 불안감이었다고 하였으며(김주희, 1982), 생소한 병동환경 적응의 어려움에 따른 긴장감, 기대와 현실간의 차이에 따른 실망과 회의, 신체적 피로 및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간호에 대한 만족 및 간호의 정체감을 통하여 성취감까지 가지게 한다고 하였다(고성희, 김기미, 1994).

또한 간호활동 영역에서 실습시 주로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만 반복될때 가장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전화연, 1984),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이 삶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되고 실습을 하면서 기본간호기술이 점차 익숙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박송자, 1993). 한편 학과 적응일수, 이론 담당교수의 실습지도자 여부, 대인관계에 따라서 만족감이 다르며(이숙자, 1980), 환자의 간호에 대한 자신감과 간호기술습득, 학과 특성에 따른 필수사항으로 만족감을 가지고(김주희, 1982), 학습진도에 따라 새로운 경험을 갖게해 임상실습 내용에 대한 만족감을 가진다고 하였다(김명숙, 1993). 특히 김화신(1988)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임상교육과정, 임상지도교수, 임상실습 환경, 임상실습평가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병원실습중심의 임상실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보건소실습을 대상으로한 연구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의 효율화를 위해서 Dexter 등(1980)은 교수들이 실습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고려하여 문제점을 교과과정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Werner(1980)는 교수와 간호사는 미래와 과거를 잇는 교량역할이어야 한다고 했으며, Thies등(1987)은 실습전 오리엔테이션이 강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놓친 학생들에게 동일한 정보제공의 기회가 된다고 했으며, 김영혜(1982)와 김은정(1984)은 실습전 오리엔테이션 계획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군자 · 김명순 · 양영희(1989)는 전국 42개 전문대학 간호과를 대상으로 임상실습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임상실습 효율화 방안으로 실습교수요목 작성 및 학생에게 전달, 임상병원과의 긴밀한 협조, 임상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실습전 오리엔테이션 및 다양한 학습방법 사용, 신뢰도 높은 평가도구사용, 교수의 임상경력 및 계속교육의 필요성, 임상부서에 교수실 설치 등을 제언하였다.

한편 신경림(1993)은 임상교육의 효과적인 대안을 위해서는 간호교육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의 활성화 및 국내외 강습교육연구와 workshop 참여율의 증진, 학생, 간호사, 교수 그리고 대상자가 참여하는 실습현장 확보, 간호수행교육실시 self-empowerment model의 형성, 경험있는 간호사와 교수와의 학문적인 교류, 다양한 교수방법 사용, 임상지도교수의 임상경력 및 지속적 보수교육, 그리고 임상교육의 장과 대학측의 법적, 제도적 책임 한계규정 및 임상실습 현장 시설확충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정영숙(1982)은 지역사회간호학 실습교육에 주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습자원의 적극적 지원과 교육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좁히는 일, 자질있

는 지도교수의 확충, 다양한 교육방법과 내용 및 객관적 평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은 연구들은 실습에 임하는 간호학생의 관점에서 또는 실습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들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습교육에 영향을 주는 간호수행 역할모델이 되는 현장 실무자들의 간호학생 실습지도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임상실습에 관한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고성희·김기미(1994)의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하여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지인 8개 병동인 성인, 모성, 아동 간호실습의 첫 느낌이나 생각, 지각 등을 현상학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었으며, 우선혜·박영숙(1995)은 학교간호실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보건실습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은 기대감이나 각오, 경이로움, 피로, 긴장감, 만족감과 아쉬움, 양호교사의 교사상, 대상자에 대한 사랑으로 임상실습과 다른 대상자에 대한 애정과 새로운 역할에 대한 확립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보건소에서는 각 과·계의 각실에 배치된 학생들이 대상자 실무담당자인 간호직, 보건직 간호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간호업무 수행을 직·간접적으로 관찰하게 되고, 보건간호사의 역할을 배우게 되는데, 보건간호사들은 실습학생을 실무지도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실무자로서의 경험을 보건간호사들의 입장에서 기술하는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그 기술속에 있는 실습지도경험의 이해를 바르게 인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간호직 간호사의 간호학생 실습지도 경험을 파악하는데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귀납적 서술연구이다.

현상학적 접근은 대상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에 의미뿐 아니라 그들의 삶과 지각의 장에 들어 감으로써 그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하고 대상자의 경험을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간호학에서는 인간의 현상은 총체적이며, 의미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인본주의를 지향하고(최영희, 1993), 이런 현상학적 양식은 간호의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여 인간현상을 탐구하는 간호학에 매우 가치가 있다고 본다(Oiler, 1982; Munhall, 1989). 이에 본 연구는 대상자의 경험을 심층분석하여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M시, S군 보건소에 보건직, 간호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간호사이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연구자의 실습지도 학생들의 실습지역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간호사였다. 연구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실습학생을 실무지도한 경험이 6개월이상인 자로서 본 연구에 참여하는데 적극 동의한 총 6명이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1996년 12월 20일부터 1997년 1월 20일까지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자가 직접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는 직접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면담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담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대상자 앞에서 녹음을 하였다.

총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개인당 30분~2시간 정도였으며, 자료의 분석을 위해 녹음된 자료를 기록하는데 1명의 대상자당 2.5~4시간을 소요하였다. 면담전에는 전화를 통하여 실습담당자와 계장, 그리고 대상자 개인별로 연구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었고, 방문하여 보건소 실습담당자와 계장, 그리고 대상자 개인별로 연구목적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대상자 개인별로 약속한 면담일자에 방문하여 근무부서에서 보건소 내방자가 없을 때 실시하였으며, 일부 대상자는 보건소 내방자의 계속적인 방문으로 휴게실에서 실시하였다.

질문내용으로는 간호학생 실습지도 경험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지각,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연구대상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중립적 태도를 유

지하고 지지해 주었다. 대상자들은 연구자가 평소 학생들의 실습지도를 위해 내방하여 이미 친밀감이 형성되었으며, 면담시 자신들의 궁금한 앞으로의 지역사회간호사업의 방향이나 간호직 공무원의 사업, 공무원의 사기 등을 질의하기도 하며 면담에 응하였다.

4. 자료분석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Van Kaam(1969)이 제시한 방법을 근거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본 연구자들의 분석을 위해 대상자와의 면담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대상자의 말 그대로의 자료를 글로 옮겨 기록하였다.

2단계 : 기술한 내용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비언어적 내용 및 의미까지 포착하려고 녹음테이프를 다시 들으면서 의미있는(절과 문장)을 추출 하였다. 6명의 대상자로부터 추출한 의미있는 진술은 3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추출을 시도하여 총 203개의 진술이 확인되었다.

3단계 : 추출한 의미있는 진술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각 진술에서 같은 의미의 속성으로 묶어지도록 범주화 하였고 원자료에서 공통적인 의미를 모아 부주제로 하였으며, 비슷한 요소를 지닌 부주제들을 다시 모아 주제들의 속성을 범주화 하였다. 범주화된 자료에서 주제들을 자료의 빈도별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였다. 최종적으로 나와진 결과는 203개의 의미있는 진술에서 27개 부주제로 묶여졌고, 부주제는 6개의 주제로 모아져 분류되었다.

4단계 : 본 연구에서 분류된 범주화를 통해서 보건소 간호사의 간호학생 실습지도경험을 기술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일부 도시지역의 보건소 간호사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군이나 대도시 보건소 간호사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도 제한점이 될 수가 있다.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연령은 20대 1명, 30대 2명, 40대 1명, 50대 2명이었고, 학력은 고졸 1명, 전문대졸 3명, 전문대 졸업후 방송통신대학 재학중 2명이었다. 종교는 천주교 3명, 기독교 2명, 무교 1명이었으며, 결혼상태는 미혼 1명, 기혼 5명이었다. 근무부서는 진료실 2명, 결핵관리실, 투약실, 예방접종실, 가족계획상담실이며, 보건직 1명, 간호직 5명이었으며 직급은 8급 3명, 7급 3명이었다. 근무경력은 임상경력 10개월에서 15년이었고, 보건소 경력 4년에서 13년 6개월 이내이었다.

2. 분석결과

각 범주에 따른 주제 및 부주제 그리고 의미있는 진술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보건소 간호사들이 간호학생을 지도하면서 역할부족감, 학생에 대한 기대감, 업무성취감, 환경의 불만감, 조직의 자존감,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보건간호사들은 역할부족감을 경험하였는데, 그 요인으로 실습지도자로서의 미흡함, 두려움, 무관심, 불편감, 시간부족, 신체적·정신적 피로, 각오로 범주화 되었다.

즉, "좀더 결핵과 관계해서는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많이 느껴지고... " "저도 부족해 가지고... 아니요,.. 저는 지도자가 아니죠...." 우리가 업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은 학생들한테 특별하게 세세하게 업무를 못 가르쳐줘요. 그래서 대충 그냥 보건소는 이런 정도로 그렇게 알게 (가르쳐준다.)..." 와 같이 실습지도자로서의 미흡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되도록이면 여기는 결핵실이니까 모든 것들은 다 전해주고 싶은데... 그런거 있어요. 요즈음 애들이 (학생) 우리 시대하고 틀려가지고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바쁠때는 더도와달라 하니까... 바쁜데 선생님(의사) 한테는 더

<표 1> 각 범주에 따른 주제 및 부주제

원자료	부주제	주제
		역할 부족감
제가 미약하거나 하면은... 제 스스로 당연히 미약하죠. ; 또 제가... 또... 응... 좀 더 결핵과 관계해서는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많이 느껴지고... ; 저도 부족해가지고... 아니요.... 저는 지도자가 아니죠...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호호... 지도자로 느끼지 않고 있는데 지도자로 말씀 하니까 어렵다고요... ; 아... 요즈음 실에서 하면은 별다르게... 우리가 업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은 학생들한테 특별하게 세세하게 업무를 못 가르쳐줘요. 그래서 대충 그냥 보건소는 이런 정도로 그렇게알게 (가르쳐 준다).	미흡함	
되도록이면 여기는 결핵실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전해주고 싶은데... 그런 거 있어요. 요즈음 애들이(학생) 우리 시대하고 틀려가지고 싫어하지 않을까... ; 그런 것도 없지않아 있어요. 바쁠때는 더 도와달라 하니까 바쁜데 선생님(의사)한테는 더 잘하니까요. 이렇게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어요.	두려움	
그때는 저도 같이 배우는 입장이었는데요 뭐, 그때는 이제 저쪽에서 처음 결핵실에 지여사님이 다 교육을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배우는 입장이었고 특별히 학생들한테 신경을 쓸 입장이 형편도 못되었고 그랬었고, 이제... 별로 고민없이 한 것 같아요. ; 아는 것만... 알려주면... 액팅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알려주면 일러주면은 그걸 굉장히...	무관심	
실마다 바쁜 시간이 다 틀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은 괜찮은데, 바쁜 시간이 다 틀려가지고 학생들 모으기가 힘들 때는 실에서 봐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기간이 짧아지고...	불편감	
일주일... 짧아요?... 보건소 일주일이면은 돌아가기도 힘들겠다 그렇죠. 다 알고 싶죠.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기간이 짧아가지고...	시간부족	
학생들이 자주 바뀌니까,,, 오리엔테이션 주는것도 불편하고 입이 아프더라고요. 예..예.. 그렇게 해야 쓰것다. 맞아요.	신체적 피로	
어려운 점은 그것요. 자주 바뀌니까 그 사람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동안 좀 신경이 써야 돼고... 쫌만 하면 이제 익숙해지죠. 호호...; 걔네들이(학생들) 괴롭혀요. 많이... 실습하는데 뭘 알아와라 했다고...	정신적 피로	
되도록이면 학생에게 많은 (것을)... 줄려고 노력할께요. 시키는 것만 그런...	각오	
		학생에 대한
학생들한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구식이거든요. 어떤게 구식 이냐면은 기본자세를 굉장히 주요시 하는 편이에요. 배우는 자세, 그리고 요즘 그렇게 생각안하더고요, 그리고 간호사라는게 서비스... 물론 프로패셔	봉사,헌신 정신	기대감

(계속)

원자료	부주제	주제
날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나에게 봉사하는 경우에 자기를 비워야되고 자기보다는 아무래도 남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면을 포커스를 많이 맞추기 때문에.... 그런편이예요. 그 다음날에 태크닉은 익혀가는... 근데 보건소 실습... 그... 의미가... 실무를 다 접하는 것이잖아요. 학생들한테 어렵지만은 좀 자기를 비우고 힘들지만은 고전적으로 좀 순종하고 좀 이렇게 희생하는 자세로 임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들어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민원... 일을 가지고 요즘 호호... 자기주장... 좀... 잘모르겠는데.. 내막까지는 잘 모르는데.. 적어도 간호사가 안된다면 모르지만 간호사가 될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간호사지... 자기주장만 하다보면 일을 못하잖아요. 좀 손해보는.. 택했으면 좋겠어요... 업무는 심플하니까... 괜찮죠. 뭐.		
일단 오면은 이제 좀 뭐라도 하나라도 더 배우고 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죠. 당장 이런 생각은 해요. 당장 졸업하면은 보건직 시험봐 가지고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배운 것이 끝이 될수도 있거든요. ;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의 노파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생각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이 실습이 이거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기회라고 해야되요... 기회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 그런 것에서 하나라도 좀더 알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죠.	기회유용	
적극적인 학생이 더나아... 내가 내성적이다 보니까 학생들은 내성적이고 하면... 비교적 질문을 안하는 것 같애요. ; 어쩌다 물어보는 학생도 있기는 있는데... 별로 질문을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 대강 오리엔테이션 주고 알고 싶은게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실습하는 도중에 수시로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별로 알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 알아서 안물어보는 건지 몰라서 안물어보는 건지... ; 우선은 내가 업무가 바쁘니까... 내 업무를 치중하다 보면은 학생이 사실 물어봐야 이렇게 해주지... 스스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그렇고... 바쁠때는 굉장히 업무가 사실 학생들 한테...	소극성	
지금은 애들이 많이 활발해졌데요. 배울려고 하고 물어보는 것도 많고 물어보고 의사 선생님한테나 저희들 한테나... ; 의욕적으로... 애들이 활발해 가지고... ; 예... 적극적인 학생은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데요..	적극성	
애들이 차이도 있데요. 많이... 진료실 같은데는 좀 복잡해도 접수하는 것 시켜보거든요. 증번호같은 것... 어떤 애들은 잘하는데... 차이는 있어요. 마음에 들게 기록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 것 있더라고요	차이성	
화장 좀 진한 편이죠 . 뭘라고... ; 틈틈히 공부도 하고.. 좋을텐데 아무 책도 안가지고 와서 우두커니 있기도 하고... 너무 시간이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안타까움	

(계속)

원자료	부주제	주제
굉장히 우리애들이 그전보다 인사성도 밝고 좋아요. 활발해졌어요.; 시간 관념같은 것은 정확하고...	예의바름	
		업무성취감
학생들한테... 헤헤... 순회진료 가면 좋아라 하더라고요. ; 순회진료... 순회진료 같은데 가면 우리가... 가까운데는 데리고 가거든요. 지도나 압해도로 가면 엠블런스로 가고... 노인정 갈 때... 한 번씩 가고 그러는데... ; 그런 경우도 있을 건데 또 지금은 아래층에 있다 보니까 덜한데, 윗층에 있을 때는 5~6명이 나오니까... 접수하는 것도 말기니까 좋아라 하던데요. 접수하다보면 일도 구분되고 좋아라 하는데...	만족감	
실습생은 하루 근무하고 하루 바뀌고 그러니까... 그 오리엔테이션이 실습... 그... 실습내용이 이것드라고요. ; 오리엔테이션을 잘 줘야 될 것 같드라구요. 애들이 실지 줌으로써 다 알잖아요. 오리엔테이션 안준 것에 대해선 잘 몰라요. ; 관련없으면 오리엔테이션이 잘 안서잖아요. 포괄적으로 느끼면 몰라도... 그 위에서 딱 집어주기 전에는 몰라요.	중요성	
가끔 이제 도울 일이 있으면 이제... 학생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요. 도움이 돼죠 뭐. ; 하여튼 좀 바쁘고 그럴때는 약간은 도와주고 직접 내일보다도 방문직들 출장직들이 좀... 도와주고...	업무협조	
뭘 가르쳐줘야 할까 좀 그런 부담감이 처음에는 느껴졌죠. ; 글쎄... 처음 해보니까 무얼 해주어야 되는가.	부담감	
		환경의 불만감
학생에게 아쉬운 것은 몇 년전만 해도 계장님들이 먼저 보건업무, 보건소 업무, 가족보건, 보건행정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 해주고 전부 해주시고 했는데, 그것을 안해주시더라구요. ; 전문대도 처음에는 좀 자세히 해주셨어요. 보건소의 일반적인 업무를 각 계별로 해서 제가 가족보건업무 할 때만 해도 업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 체계적은 아니지만 교육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지금에 와서는 루즈해졌죠. 지금은 덜되는 것 같애요. ; 학생들 말도 듣고 싶고... 보건소에 와서 얼마나 뭘 배웠는가... 도움이 안된 것 같아요. 사업계획이 방문간호...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좀 힘든가봐요. ; 그리고 순회진료 또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가고 싶거든요 순회 갈 때 저희들은 우리도 학생 때 그게 남으니까. 그 경비같은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게 아쉬웠어요. ; 사실 그... 대도시 서울같은데는 또 센타있는 지역에도 활발하지요. 임산부나 모자보건이나... 진도는 산부인과가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제가 갔을 때 한사람 있었고... 미드와이프가 나까지 3명 있었거든요. 3명이 근무하니까... 한사람은 있고... 이제... 출장 다니기도 했어요. 한 200명 정도 관리했거든요. 진도내에 임산부들이 다 우리 센타에 왔었어요. 진도에... 그러니까.. 몇 개월 근무하니까 완전히 다 알아 버리드라고요. 다 알아볼 정도로...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활발했어요. 지금은 초음파로 보니... 그때 당시만 해도 도플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신기한가 봐요. 예.. 쪼	아쉬움	

(계속)

원자료	부주제	주제
그만 것 사가지고... 출장가서 또 해주고 그때 참 보람있었던 것 같애요. 여기는 이제 ××....××, ××에 있으니까.. 시골에서 하는게 보람이 있었는데... ; 넓은 의미로 그 관리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어요. 학생들도 어려울 것 같애요. 지역사회가 건강증진 뭐... 또 하나하나... 할라면 뭘 알아야 하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글자하나 실습학생에게 못맡겨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되니까... ; 통계를 내라는 등 그런 것은 못맡기겠드라고요.	업무책임에 대한 불안감	
요즈음 애들에게는 실습형태가 진료실 같은데는 좀 쉬울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업무가 진료실이나 더 배우는것도 있고 ... ; 또 결핵실 같은데도 환자 있을때는 더 좋잖아요. 환자에게 같은 것 주는 것 ...	다행스러움	
제일처음에 와서는 애들이 쫌 이렇게 좀더... 보건소 뭐라나 전반적으로 기대를 하고 올것인데... 이렇게 좀 단순하잖아요... 보건소 업무가.. : 요즈음에 와서는 진료실도 많고 뭐했는데....언젠가 한 번 이런 얘기를 한 학생이 있어요."항상 이렇게 한가해요?" 그때 그랬지요. 한가할 때도 있고 바쁠때도 있다.하하... 그때 학생이 나올때는 유난히 한가 하네요. 좀 그런것 있는것 같애요. : 제 가 않좋았던거는 보건소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인품을 듣고 오는가봐요. 어느 보건소에 가면 어떻고 어느 보건소에 가면 어쩐다... 서로... 그런 것을 듣고 오기 때문에 마음자세가 더좀... 그런 것이 있는 것도 같애요.	우려감	조직의 자존감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애요. 학생들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같은거, 약 같은 것은 좋게도... 굉장히 않좋은... 영세민이나 가는곳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 예방접종... 보건소 가라하면 병원다녀요. 아는 사람은 많아 이용하는데... 예방접종도 저희는 한달에 한 번씩 도에서 수령하니까, 또 실습해보는 것 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드라고요. : 보건소 이미지에 대해서도 학생도 해보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애요.	긍적적 이미지	
저희가 학생때는 참 보건소에 대한 것이 참 그랬어요. (안 좋았다) ; 저... 실습 나왔을때는 시 보건소로 갔는데... 나도 학생때 생각해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나더라고요. (실습기억)	부정적 이미지	
근데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끌어드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쫌 안 맞아요. 과감하게 던지고... 익힐 것은 익히고.... 그런데 그 방향제시를 계속 이끌고 있다고 생각이 들데요. ; 병원과 보건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자주... 저는 교수님이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아 될 것 같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실상을 아니까... ; 제가 보기에는 별로 텍스트북하고는... 그러더라고요. 간호는 자기가 임상을 한 것 하고 안한 것하고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위 것들이 참 많아요.	비현실감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
또 제대로 전달도 안된다거나... 사무실에 앉혀 놓는 것보다 이야기해주어도 일을 잘 모르니까 잘 안들어가나 봐요.	상호작용에 대한 불만족감	

잘하니까요. 이렇게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어요."와 같이 역할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도 배우는 입장이었고 특별히 학생들한테는 신경을 쓸 입장이 형편도 못되었고, 그랬었고..." "이제... 별로 고민없이 한것 같아요... 아는 것만... 알려주면... 액팅하는 것도 있잖아요"와 같이 역할에 대한 무관심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일주일... 짧아요?" "기간이 짧아가지고... " 처럼 실습지도자의 역할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함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바쁜 시간이 다 틀려 가지고 (각실마다) 학생들 모으기가 힘들때는 실에 봐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와 같이 불편함을 경험하였고, "학생들이 자주 바뀌니까... 오리엔테이션 주는 것도 불편하고 입이 아프더라구요." 와 같이 신체적 피로 "어려운 점은 그것요 자주 바뀌니까 그 사람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동안 좀 신경이 써야 돼고... " "걔네들이 (학생들) 괴롭혀요. 많이... 실습하는데 뭘 알아와라 했다고..." 와 같은 정신적 피로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되도록이면 학생에게 많은 (것을)... 줄려고 노력할께요. ... " 과 같이 역할에 대한 다짐을 하는 각오를 가지는 것을 알수 있었다.

둘째, 보건간호사들은 실습지도 간호학생에 대한 기대감을 경험하였는데, 그 요인으로는 봉사헌신정신, 기회유용, 소극성, 적극성, 차이성, 안타까움, 예의바름으로 범주화되었다.

즉, "간호사라는게 서비스... 물론 프로페셔날...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남에게 봉사하는 경우에 자기를 비워야 되고 자기보다는 아무래도 남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면을 포커스를 많이 맞추기 때문에... 그런 편이예요." "학생들한테 어렵지만은 좀 자기를 비우고 힘들지만은 고전적으로 좀 순종하고 좀 이렇게 희생하는 자세로 임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같이 봉사헌신정신을 간호학생에게 기대하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한편 "일단 오면은 이제 좀 뭐라도 하나라도 더 배우고 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죠." "... 기회는 마지막이 될수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하나라도 더 알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죠." 와 같이 학생들의 실습시기에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적극적인 학생이 더 나아... 내가 내성적이다 보니까... 학생들은 내성적이고 하면... 비교적 질문을 안하는 것 같애요." "어쩌다 물어보는 학생도 있기는 있는데... 별로 질문을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와 같이 학생들의 소극성과, "지금은 애들이 많이 활발해졌데요. 배울려고 하고 물어보는 것도 많고 물어보고..." 학생들의 적극성을 나타냈다.

한편, "애들이 차이도 있데요. 많이... " "진료실 같은데는 좀 복잡해도 접수하는 것 시켜보거든요. 증번호같은 것... 어떤 애들은 잘하는데... 차이는 있어요. 마음에 들게 기록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 것 있더라고요."와 같이 학생들의 차이성을 경험하였다. 또한 "화장이 좀 진한 편이죠" "... 아무 책도 안가지고 와서 우두커니 있기도 하고... 너무 시간이 아깝다. 그런 생각도 해요." 와 같이 학생의 태도에 대해 안타까움도 가지기도 하지만 "... 그전보다 인사성도 밝고 좋아요" "활발해졌어요" 같은 예의바름을 경험하였다.

셋째, 보건간호사들은 실습지도에 대한 업무성취를 경험하였는데, 그 요인으로는 만족감, 중요성, 업무협조, 부담감으로 범주화되었다.

가장 많이 경험하는 느낌으로는 만족감이었는데 "순회진료 가면 좋아라 하더라고요." "노인정 갈때... 한번씩 가고 그러는데..." "... 접수하는 것도 맡기니까 좋아라 하던데요. 접수하다보면 일도 구분되고 좋아라 하는데..." 등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여 학생들과 실습지도자인 보건간호사들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을 잘 줘야 될것 같더라구요. 애들이 실지 줌으로써 다 알잖아요." "오리엔테이션 안준 것에 대해선 잘 몰라요. 관련없으면 오리엔테이션이 잘 안서잖아요. 또 포괄적으로 느끼면 몰라도 .." 와 같이 실습지도의 중요성을 경험하였으며, "도움이 되죠 뭐, 하여튼 좀 바쁘고 그럴 때는 약간은 도와주고 직접 내일보다도 방문직들은... 출장직들이 좀... 도와주고... " 와 같이 업무에 협조가 된다고 하였으며, "뭘 가르쳐줘야 할까 좀 그런 부담감이 처음에는 느껴졌죠." "글쎄 .. 처음 해보니까 무얼 해

주어야 되는가"...와 같은 실습지도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건간호사들은 실습지도 환경에 대한 불만감을 경험하였다. 그 요인으로는 아쉬움, 업무책임에 대한 불안감, 다행스러움으로 범주화 되었다.

가장 많이 느끼는 경험으로는 아쉬움으로 "학생에게 아쉬운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계장님들이 먼저 보건업무, 보건소업무, 가족보건, 보건행정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 해주고 전부 해주시고 했는데 그것을 안해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순회진료 또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가고 싶거든요. 순회갈 때 저희들은 우리도 학생때 그게 남으니까. 그 경비 같은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게 좀 아쉬웠어요." " 넓은의미로 그 관리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어요." "학생들도 어려울 것 같애요. 지역사회가... 건강증진 뭐... 또 하나하나... 할라면 뭘 알아야 하니까... 학생들이..."와 같이 실습지도 환경인 조직, 재원, 인력, 활동양상에 따른 불만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러니까 글자하나 실습학생에게 못 맡겨요." "틀리면 안되니까... 통계를 내라든 등 그런 것은 못 맡기겠드라고요." 와 같이 학생에게 직접업무를 수행케 하는데는 보건간호사의 업무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소에서는 업무가 진료실이나 더 배우는것도 있고 ..." "또 결핵실 같은데는 환자 있을때는 더 좋잖아요. 환자에게 주는 것 같은 것..." 와 같이 실습지도 환경의 다행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보건간호사들은 조직의 자존감을 경험하였는데, 그 요인으로는 우려감,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로 범주화되었다.

가장 많이 경험하는 느낌으로는 우려감이었는데, "제가 안좋았던거는 보건소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정보를 듣고 오는가봐요. 어느 보건소에 가면 어떻고 어느 보건소에 가면 어쩐다... 서로... 그런 것은 듣고 오기때문에 마음 자세가 좀 ... 그런 것이 있는것은 같애요." 와 같이 보건소기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소 이미지에 대해서도 학생도 해보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애요."와 같이 보건소에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학생때는 보건소에 대한 것이 참 그랬어요. (안좋았다.)" "나도 학생때 생각해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나더라고요. (실습기억)" 처럼 부정적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여섯째, 보건간호사들은 지역사회간호의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을 경험하였는데, 그 요인으로는 비현실감, 상호작용에 대한 불만족감으로 범주화되었다.

즉, "병원과 보건소가 다르기때문에 그런... 자주... 저는 교수님이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실상을 아니까..." "간호는 자기가 임상을 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텍스트북하고는... 그러더라구요. (차이가 있다.)" 와 같이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실감하는 비현실감을 느끼는 것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 제대로 전달도 안된다거나..." "사무실에 앉혀놓는것보다... 이야기해주어도 일을 잘 모르니까 잘 안들어가나봐요." 처럼 학생들의 보건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족으로 인한 전달이 잘 되지 않아 상호작용에 대한 불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보건소간호사들은 간호학생 실습지도를 통하여 역할부족감, 학생에 대한 기대감, 업무성취감, 환경의 불만감, 조직의 자존감,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보건소 간호사들은 실습실무지도의 역할부족감을 나타냈는데, 자신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 간호학생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어야 될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박인혜 · 소향숙(1986)의 보건소 간호사들의 역할인식 정도에서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역할중에서 교육자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듯 보건소 간호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수옥(1990)의 연구에서 보건소 간호사의 역할갈등은 자신의 보건간호 업무수행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부족감은 보건간호 업

무수행을 간호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육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도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성이 사료된다고 본다.

이군자 · 김명순 · 양영희(1989) 연구에서 나타난 임상에서 필요한 10가지 평가 내용의 평가정도에서 가장 높은 시간엄수성은 보건소실습 간호학생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명감인 간호정신 같은 봉사헌신정신의 부족을 보건간호사들은 학생에 대한 기대감에서 지적하였다. 이는 정영강 등(1988)이 43개 간호전문대와 17개의 4년제 대학의 철학과 목적진술이 약하고 형식적이며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간호교육과정에서 간호철학의 정립을 통한 연계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신경림(1993)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물질문명의 풍요와 관료조직체제속에서 간호의 비인간화, 간호의 부재 또는 간호사 역할의 혼돈을 야기하고 있는 이때 간호교육의 "인간화"는 교육과정의 간호철학에 인본주의 간호를 포함하여서 "간호의 내적 가치화"가 살아있는 전문간호사로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지적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보건간호사들은 간호학생을 실습지도하면서 업무성취감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실습지도교수는 아니지만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로서 간호학생의 실습지도자 참여가 실습지도자의 자기성장을 위한 자극제로 작용하여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과 계속교육에 대한 기회를 찾는다는 Bizek(1990)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보며,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임상실습활동 모델로 간호학생과 간호사가 1:1로 실습지도하는 실습지도자 (preceptor)를 적용한 연구에서(이원희등, 1995)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이 실습지도자(preceptor) 활용모델 적용 전보다 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에서도 볼 수 있었다.

보건소 간호사는 실습지도 환경의 인적, 경제적, 제도적, 행정적 아쉬움과 업무책임으로 학생에게 직접 수행하는데는 한계를 가지는 실습지도 환경에 불만감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정영숙(1982)이 지역사회간호학 담당주임교수를 대상으로 총 53개로 실시한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교육의 26.0%를 차지한 제일 큰 문제점에서도 실습자원 즉, 실습장 확보 시설, 대상자, 기구, 참고문헌 등의 부족을 지적하였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자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 간호사 자신들의 근무기관인 보건소에 대한 인식을 타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원하는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자타가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기관의 양상을 창출하는 노고의 일환으로 1996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된 다양한 보건소의 사업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을 경험하여 비현실적이고 상호작용이 안되는 실습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정영숙(1982)이 지역사회간호 실습내용의 문제가 이론과 실제와의 차이가 가장 많은 이유를 나타냈던 것과 일치한다. 신경림(1993)은 이론과 실제와의 관계를 간호실습 지도교수가 훌륭한 스승이자 연구자일뿐더러 간호전문가이어야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간호수행의 학문적인 가치는 간호대학 자체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수들의 직접적인 간호수행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실습장인 꼭 병원을 의미하기보다는 각 학교의 철학에 따라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간호수행을 포함시키므로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좁혀 나갈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Zerbe (1991)는 실습지도자만이 담당했던 역할을 3자 즉, 실습지도자와 실무교육자, 교수가 각기 분담하게 한 three-tiered team model을 제시하였다. 이를 이원희등(1995)의 연구에서는 실무교육자의 역할을 수간호사가 수행하도록 제시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를 각과 계장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간호학생들의 실습지도가 현실적이고 간호학생들은 간호행위에 대한 근거를 이해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며, 좋은 role model을 보고 바른 실습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임상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실습지도자(preceptor)는 공부할 수 있는 자극, 기회가 되고 학생 임상실습에 대한 책임감과 학교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의 효율성으로 간호학생들의 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는데, 보건소에서도 각과 계장이 실무교육자, 각 실장이나 실요원이 실습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보건소 기관과 대학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해 볼 수 있는 실습응용 모델이라고 본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소 간호사가 간호학생 실습지도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실습지도 경험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그들의 입장에서 보고 기술하고 분석하여 보건소 간호사의 실습지도의 문제를 이해하고, 효율적이고 전인적인 지역사회간호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과 보건소와의 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M시 소재한 M보건소와 S보건소의 보건직, 간호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간호사로써 간호학생을 지역사회간호 실습실무의 지도경험이 6개월 이상인 자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6년 12월 20일부터 1997년 1월 20일까지였으며 기관방문 및 녹음기 사용과 함께 비구조적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Van Kaam(1996년)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보건소 간호사들은 간호학생 실습지도를 통하여 실습실무지도자로서 미흡함을 가지며 지도할 내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역할 부족감을 경험하였으며, 간호학생에 대한 봉사, 헌신정신과 적극성을 가지고 실습에 임하기를 기대하였으며, 한편 실습지도를 하면서 자신의 실습지도업무가 학생들에 끼치는 영향을 통하여 만족감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업무성취감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보건소 환경이 간호학생을 실습지도하기에는 많은 제약된 환경여건에 불만감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직장인 보건소라는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라는 자존감은 가지고 있었으며 실습지도하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실습내용이나 상호전달이 잘되지 않는 불만족감을 경험하였다.

보건소 간호사의 간호학생 실습지도 경험에 대한 이상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인간을 대상으로 간호하는 간호전문직인으로서 투철한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교과과정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여러가지 건강요구를 가지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평생관리하고 지역사회 대학의 학생들을 실습지도하는데 책임감을 다하는 조직의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역사회 보건소와 대학간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김성실(1984), 보건간호 분야 직무수행 관련요인분석. 춘천간호전문대학논문집, 14 : 313-345

박인혜, 소향숙(1981), 보건소 간호사들의 역할인식정도와 직무 만족정도에 관한 조사 연구. 전남대학교논문집, 31:35-493

유수옥(1987), 의료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반응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소애영(1987), 우리나라 보건소 근무 간호사의 직업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원주전문대학 학술논총, 13:207-221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7), 의료자원과 관리체계에 관한 조사 연구

정영숙(1982), 지역사회간호학 실습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조사, 대한간호, 21(5):56-64

Fisher, A.H., Johnosn, S.A.(1981), The 3-way conference-nursing student, Nursing Supervisor, nursing educator. J.N.E, 18-23

정영강, 김윤희, 양광희, 한경자, 한상임(1988), 간호교육 철학정립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대한 간호학회지, 18(2) : 162-188

김성희, 김기미(1984),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 33(2):59-72

이원희, 김소선, 한신희, 이소연, 김기연(1995), 임상 실습개선을 위한 실습지도자 활용 모델(preceptorship model)의 적용 및 효과에 관한 연구-암센타, 재활센타, 중환자실 실습을 중심으로 -. 대한간호학회, 25(3):581-596

이원희, 방매륜(1993), 한국 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전문직 제도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간호, 29(1): 72-81

윤순녕(1995), 보건소의 환경 조직구조와 조직유효성과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6(1):5 -33

유수옥(1990), 보건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전문직 제도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간호, 29(1):72-81

유수옥(1987), 의료직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및 인사 제도 개선안에 대한 반응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Sobel, E.G.(1978), self-actualization and the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response to strees. N.R., 27:4, 238-244

전화연(1984),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세 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송자(1993),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 Q방법론 적용, 대한간호학회지. 23(4):544-554

이숙자(1980),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0(2):41-51

김명숙(1993), 간호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7(2):77-88

김화신(1988), 일부 간호학생들의 불안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 중앙의학. 53(5):275- 284

Thies, K. M., et al.(1987), The Clincal application of mental health concepts in the integrated curriculum. J.O.N.E., 26(6):240-250

김영혜(1982),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일부 간호학생의 태도 조사 연구, 대동간호전문대학논문집 2:43-56

김은정(1984),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와 인성과의 관계.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논문집 8, 133-151

Dexter, P.A., et el.(1980), Breaking the education service barrier. N.O. 28:179-182

Werner, J.(1980), Joint endearors : The way to being service and education together. N.O, 28:546-550

신경림(1993), 임상교육의 효과적인 대안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32(5):93-105

Oiler, C.J.(1982), The Phenemenological approch in nursing research. N.R., 31:178-181

Munhall, P.L(1989), Philosophical pondering Qualitati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N.S.Q, 2(1):20-28

김성실, 이인숙(1980), 지역사회보건간호 실습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춘천간호전문대학논집 10:69

우선혜, 박경숙(1995), 학교보건 실습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6(2): 161-172

윤순녕, 김영임, 최정명(1995), 보건진료원의 지역사회 몰입과정. 지역사회간호학회지, 6(2): 161-172

Bizek, K.S & Oerman, M.H(1990), Critical care education study of education a: study of educational experiences, support, and job satisfactoon among ciritical care nurse preceptors. The Journal of Critical care 19(5):439-444

Zerbe, M.B. & Lachat, M.F (1991), A Three tierded team model for undergraduate preceptor program. Nurse educator, 16(2): 18-21

Van Kaam(1969), Existential foundations of psychology. New York : Doubleday

최영희(1993), 질적간호연구. 서울:수문사, 269-341

김화중(1982), 우리나라 보건간호원의 역할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학회지, 34

보건간호소식(1996), 1996년도 보건분야 간호인력 통계조사표. 63

이군자, 김명순, 양영희(1989), 간호전문대학의 간호교육 임상실습 효율방안에 관한 일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1):77-107

= ABSTRACT =

A Practical Instructional Experience of Public Health

You, Soo-Ok (Mokpo Junior College)

A phenomenologic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ublic health nurses who performed practical instruction for nursing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lived experience of public health nurses who performed practical instruction for nursing students.

The research question was "What is the structure of the experience of public health nurses who performed practical instruction? The sample consisted of 6 nurses working at health center in M&S city.

The unstructed interview were carried out from December 20, 1996 through January 20, 1997. They were audio-recorded and analyzed using Van Kaam's method.

These nurses experienced lack of role, expectation of nursing students, duty achievement, dissatisfaction about enviornment for practical instruction, practice-theory gaps performing practical instruction for nurse students.